

1960년대 초중반 미·일 베스트셀러 전쟁문학의 수용과 월경하는 전쟁 기억, 재난·휴머니즘과 전쟁책임*

노먼 메일러 『나자와 사자』와 고미카와 준페이 『인간의
조건』

이행선 _고려대학교 양아람 _고려대학교

논문요약

이 글은 한국에서 번역되어 1960년대 초중반 베스트셀러가 된 미, 일 전쟁문학 노먼 메일러(Norman Kingsley Mailer)의 『나자와 사자(The Naked and The Dead)』(1948)와 고미카와 준페이(五味川純平)의 『인간의 조건(人間の條件)』(1956)의 수용사를 고찰하고자 한다. 당시 두 작품은 모두 제2차 세계대전의 전장을 다룬 최고의 전쟁문학으로 꼽혔다. 이 두 작품은 한국에서 순서를 바꿔 1960년 일본의 『인간의 조건』, 1962년 미국의 『나자와 사자』가 번역 소개되었다. 두 작품 모두 영화로도 제작돼 상영됐고 1960년대 초중반 한국에서 대표적인 전쟁문학으로 인기를 얻으며 베스트셀러가 됐다. 전쟁소설은 해당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문학에 속하지만 전쟁은 피해자와 피해자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일국사일 수 없는 전쟁재현이자 기억이다. 망각된 기억의 소설적 귀환은 누군가에게 '기억의 폭'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2A03927685)

DOI: <http://dx.doi.org/10.31008/MV.36.2>

력'이자 상처이며 민족감정을 자극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소설의 전쟁인식은 관련 국가와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교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국가 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경을 넘기 시작한 전쟁문학의 전쟁 기억과 전쟁체험은 국민의 역사의식과 민족감정을 확인하고 좌우하는 지점이었다. 따라서 두 소설이 함의한 전쟁인식과 전쟁 책임 및 역사인식의 실상과 그것이 한국인에게 미친 영향을 가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 주요어: 번역문학, 베스트셀러, 위안부, 한일협정, 한운사

1. 들어가며: 전쟁문학의 번역과 한·미·일 동맹

이 글은 한국에서 번역돼 1960년대 초중반 베스트셀러가 된 미, 일 전쟁문학 작품인 노먼 메일러(Norman Kingsley Mailer)의 『나자와 사자(The Naked and The Dead)』(1948)와 고미카와 준페이(五味川純平)의 『인간의 조건(人間の條件)』(1956)의 수용사를 고찰하고자 한다. 두 작품은 모두 제2차 세계대전의 전장을 다룬 최고의 전쟁문학으로 꼽힌다. 메일러의 소설은 1948년 5월 출간되자 단기간에 200만 부의 판매고를 올리고, 62주 연속 『뉴욕 타임스』의 베스트셀러에 오르면서 미국 최고의 전쟁소설로 평가받았다. 이 작품은 이듬해인 1949년 일본에서 『나자와 사자』라는 제목으로 번역되며(ノーマン・メイラー 1949) 1950년 베스트셀러가 된다. 이 번역본이 1962년 한국에서 수용될 때 활용되기 때문에(메일러 1962) 한국에서도 이 제목으로 오랫동안 읽히

다가 최근에는 『벌거벗은 자와 죽은 자』로 번역되어(메일러 2016) 판매되고 있다. 1956년에 쓰인 고미카와 준페이(五味川純平 1956)의 소설은(五味川純平 1956) 한국에서 4·19 이후인 1960년 9월에 번역되었는데 당시 일본에서 이미 240만 부가 팔리고 있었고(오미천순평 1960/09) 2013년경에는 1,500만 부를 돌파한 스테디셀러다.

이 두 작품은 한국에서 순서를 바꿔 1960년 일본의 『인간의 조건』, 1962년 미국의 『나자와 사자』가 번역 소개되었다. 두 작품 모두 영화로도 제작돼 상영되었고 1960년대 초중반 한국에서 대표적인 전쟁 문학으로 인기를 얻으며 베스트셀러가 됐다. 이러한 독서 시장의 풍토는 4.19 직후 1950년대 폐색되었던 일본문학 번역이 활발하게 개시되면서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1960년경 한국에서 전쟁문학·영화의 흥행은 ‘전쟁 기억의 상품화’의 본격화와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기도 했다.¹⁾ 이와 같은 두 작품의 유행과 성공의 배경에는 대중의 관심을 자극하는 문화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역사의 문제가 결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한일회담과 식민 유산 청산, 한미경제협정 및 행정협정,²⁾ 주한미군, 베트남전쟁 등이 그것이다. 다시 말해 동아

1) 한국 전쟁 영화를 연구한 정영권에 따르면 전장과 전투 묘사의 영화는 1950년대부터 제작되었는데 1961년 영화 〈5인의 해병〉을 기점으로 하나의 본격적인 상업 장르로 자리잡게 된다. 1961년 박정희의 등장은 한국에서 전쟁 영화 및 군사 영화의 붐을 만들었다. 이는 국방부를 비롯한 군 기관의 대대적인 후원 하에 제작된 영화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무렵 전쟁 영화가 반공 영화 장르로 인식되지는 않았다(정영권 2015, 6, 27, 139).

시아-태평양 안보체제 확립을 위한 미국 주도의 한일관계 정상화와 그에 따른 한·미·일 동맹 구축 문제, 역사 청산 및 전후 책임과 민족감정, 경제 부흥과 반전(反戰) 그리고 평화 등 당대 시대적 과제가 한국 독자의 미·일 전쟁문학에 대한 관심을 높였다.

망각된 기억의 소설적 귀환은 누군가에게 ‘기억의 폭력’이자 상처이며 민족감정을 자극한다. 또 다른 한편으로 전쟁소설은 전쟁 체험의 기억뿐만 아니라 작품 제작 및 독서 당시의 국제관계와 역사현실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소설의 전쟁 인식은 관련 국가와 관계 개선을 도모할 수 있는 문화교류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한국에게 미국은 전승국이자 원조국이었고,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자이자 패전국이다. 당대는 ‘미(전승국)-일(패전국)-한(식민지)’이 문호를 개방하고 국교를 수립하여 미국 주도의 자유진영 결속과 상호 협력이 필요한 냉전시대였다. 4.19 직후 다시 시작된 한일회담은 경제 문제 해결을 위한 대외관계 개선책이지만 탈식민, 반외세의 욕망이 비등해진 한국사회에서 일종의 ‘강제된 화해’기도 했다. 국가 간 협상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국경을 넘기 시작한 전쟁문학의 전쟁 기

-
- 2) 1960년대 초중반 민족해방·민족혁명론이 비등해지는 상황에서 미국은 학생들의 반외세 대상이었다. 하지만 한미경제협정 및 한일협정반대투쟁 과정에서 고조된 미국에 대한 비판의식이, 당시 한국사회 전체의 미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넘어서지는 못하고 있었다. 한편 일본의 경우, 학생들은 한일협정을 통한 일본식민주주의의 부활을 신식민주의로 규정하고 반대했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2008/12, 473-474).

역과 전쟁 체험은 국민의 역사의식과 민족감정을 확인하고 좌우하는 지점이었다. 따라서 두 소설이 함의한 전쟁 인식과 전쟁 책임 및 역사인식의 실상과 그것이 한국인에게 미친 영향을 가늠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식민지 경험과 일본어 능력의 유/무와 관련된 세대의 호기심, 이국적이고 수준 높은 외국 문학의 재미도 독서의 중요한 요인이지만,³⁾ 전쟁문학과 당대 사회적 현안 및 역사 현실과 관련지어 독자의 욕망에 다가서는 것은 당대인의 역사인식과 문학의 기능을 타진하는데 중요한 접근법이다. 전쟁소설은 해당 국가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문학에 속하지만 전쟁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동반한다는 점에서 일국사일 수 없는 전쟁 재현이자 기억이다. 전쟁소설은 전장의 잔혹함과 수난사를 다룬다는 점에서 반전(反戰)과 휴머니즘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잔혹사이자 피해 서사인 전쟁 이야기가 피해국이나 관련 국가에 번역되었을 때 해당 국민에게는 위로와 전쟁 책임, 전후 책임, 사죄의 표현, 역사의식 등을 자각하고 재인식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자국민의 공식 기억과 역사를 대변하는 문학적 재현이라면 그것은 사죄를 함의하는 ‘전후 전쟁문학’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3) 기존 연구에서 고미카와 준페이에 대해서는 식민지배를 경험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의 일본에 대한 호기심, 향수, 일본어능력 등의 관점에서 고찰되었고 수준 높은 일본문학에 대한 동경 및 질투, 재미의 지점과 관련해 논해진 바 있다(강우원 용 2012/11, 79-93; 이한정 2016/5, 13-56). 노먼 메일러와 관련된 연구는 부재하다.

잘못된 전쟁의 기억을 후속 세대에게 역사화하고 재생산하는 역효과를 낳게 되어 ‘기억의 투쟁’을 되풀이하고 만다. 문화 교류는 상호 이해를 통한 정보격차의 완화 수단이다. 전쟁문학이 단순히 오락물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결국 역사의식이 교환되는 외국 문학의 번역과 소통은 식민지배, 분단, ‘전쟁의 고통’의 기억의 공유와 역사인식의 재조정, 민간 차원의 교류와 연대, 중국적으로는 탈국가적이고 보편적인 역사와 기억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정치적 행위이자 문화 번역 현상이다.

그래서 문학작품에서 전쟁 체험에 대한 이해 방식, 가해와 피해의 기억을 둘러싼 강조와 소거, 재생산되는 자국 중심의 역사관 등 은연중 내포된 배타적 기억을 분별하고 더 나아가 전쟁문학의 성격을 이해하기 위해 작가의 이력에 대한 기본적인 숙지가 요구된다. 다음은 노먼 메일러의 약력이다.

노먼 메일러는 1923년 미국 뉴저지 주 롱브랜치에서 태어났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항공기술학을 전공했으나 1학년 때 이미 문학에 흥미를 갖게 되어 헤밍웨이, 스타인벡, 포크너와 같은 작가의 영향을 받았다. 그는 대학 2년 때까지 20편에서 25편의 스토리를 썼는데, 그것은 모두 헤밍웨이의 영향을 받은 것이었다. 1941년 12월 8일 진주만공격은 미국 전토를 무서운 흥분의 도가니 속에 몰아넣었고 그 이듬해인 1942년, 온 나라안이 전쟁의 열기속에 들끓고 있을 때, 메일러는 안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에 도취된 채 ‘그 (인간의 조건)와 같은 소설을

쓰고 싶다는’ 의욕 속에서 ‘20세의 생일을 위해’ 쓴 최초의 야심작인 중편소설 『천국을 목적으로 한 계산』은 수년 후의 대작 『나자와 사자』와 마찬가지로 태평양을 무대로 한 것이었다. 이 중편소설은 1944년, Edwin Seaver의 『크로스 섹손』지에 발표되어 절찬을 받았다. 메일러는 이 해 3월에 베아트리스 실버먼과 결혼하고 그후 곧 군대에 들어가 태평양전쟁에 중군했다. 군대에는 2년여, 레이테, 루손, 일본 등지에서 1년반을 보냈다. 이 동안에도 대전쟁소설을 쓰겠다는 의욕은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 사무병 같은 안전한 일보다도 척후 같은 위험한 임무에 자진해 나서서 온갖 곤란한 경험을 쌓도록 애썼다. 일본점령 첫날에 제112기병중대와 함께 상륙한 후, 46년 제대할 때까지 9개월간에 걸쳐 일본에 있었다. 이 9개월간의 일본생활이 『나자와 사자』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두 말할 것도 없다. 1946년 5월, 이 대전에 대한 소설을 써야겠다는 ‘절대지상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제대, 귀국한 메일러는 곧 『나자와 사자』의 집필에 착수하여 1947년 15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 거작을 완성한 것이다(메일러 1964/2/12, 838-840; 밑줄은 인용자).

여기서 메일러의 문학수업을 살펴보면, 그는 『무기여 잘 있거라』로 유명한 헤밍웨이 등 전쟁소설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행동적 지성을 고민한 행동주의 문학자 앙드레 말로(André Malraux)의 『인간의 조건』(1933)의 영향 하에서 작가를 꿈꿨다. 문학의 기반이 되는 전쟁 체험과 관련해서는 태평양전쟁 때 필리핀과 일본 등에서의 중군과

원폭 이후 9개월여 간의 일본 주둔 경험이 있다. 이러한 문학적 지향과 체험을 토대로 소설 『나자와 사자』가 쓰였다. 앙드레 말로 문학의 행동주의는 1930년대 중반 일본과 식민지 조선에서도 지식계급의 현실 참여와 관련해 주목을 받은 바 있는데,⁴⁾ 그 행동주의는 목숨을 건 결단과 결행 그리고 용기가 요구되는 전쟁 주제와도 부합하기 좋은 질료였다.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도 중국에서의 혁명과 투쟁, 전투를 다루고 있다. 맹목적이기도 한 전쟁에서 생존을 위해 벌이는 등장인물의 극한의 투쟁은, 독자에게 감명과 열정을 자극해 전쟁소설을 읽게 하는 중요 요인이다. 그런데 행동은 맹목뿐만 아니라 정당성을 수반하므로 전쟁 작전 수행은 행동과 회의를 동시에 수반한다. 등장인물이 ‘행동, 의지, 회의’를 끝없이 반복하며 전개되는 전쟁소설은 전쟁 인식, 군조직과 메커니즘에 대한 반발, 인물 간 갈등, 사회 인식 등을 노골적으로 표출한다. 여기에 소설의 배경이 되는 전쟁 상대국과 작가의 역사의식이 결합되면서 전쟁문학이 구성되는 것이다. 『나자와 사자』의 경우 작가가 일본에서 거주했고 미국과 일본의 전쟁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국 독자의 호기심을 끌기에 좋다. 승전국 미국이 바라본 제2차 세계대전과 일본을 알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조건』의 고미카와 준페이도 종군(從軍)의 경험이 있다.

4) 여기에 대해서는 이행선(2014/8, 349-377) 참조.

고미카와 준페이는 1916년 일본이 아닌 만주 요동반도의 어느 한촌(寒村)에서 태어났다. 학생수 60여명에 지나지 않는 시골의 조그만 소학교를 나와 대련(大連) 제일중학을 졸업하고 33년 만철의 장학금을 받아 동경 상대에 입학하나 이듬해 퇴학하고 광산으로도 돌아다녔고, 또 남의 집 가정교사 노릇도 한다. 그러다가 36년 동경외국어학교 영어부 문과에 입학, 이듬해에 독서 서클과 연구회를 가졌다는 이유로 특고(特高)에서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당하는 시련을 겪으며, 40년에 졸업한다.

졸업과 함께 일본이 경영하는 만주의 거대한 군수회사에 입사, 여기서 그는 전쟁과업의 수행이란 미명 아래 휴머니즘을 말살하는 기계적인 조직과 그 힘의 강압에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대결하며 자기 존재의 정당화와 합리화를 꾀하려 노력하는 이른바 감상적 휴머니스트가 된다. 43년 가을, 광산 노무관리에 종사한 그는 만주인 특수공인의 무자비한 처형에 입회한 후 영장을 받고 군에 입대한다. 사병으로 끌려간 그는 소만국경을 2년 동안 전전하다가 45년 8월 13일 남하하는 소련군과의 전투에서 소속부대가 전멸하는 비운을 겪는다. 이 전투에서 생명을 건진 사람은 부대원 1백58명 중 고미카와 준페이를 포함하여 단지 4명뿐, 구사일생의 행운을 얻어 귀환했다. 이러한 스스로의 체험을 패전 일본에 돌아와 차분히 소화하며 쓴 작품이 대작 『인간의 조건』이다(오미천 순평b 1975/6/15, 481-482; 밑줄은 인용자).

소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메일러와 마찬가지로 고미카와 준페이

이 역시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의 영향을 받으며 작품을 썼고 일본에서 번역되어 유행한 메일러의 『나자와 사자』와 게오르규(Constantin Virgil Gheorghiu)의 전쟁문학 『25시』 등을 접했다.⁵⁾ 또한 고미카와 준페이는 1945년 만주에서 일본과 소련군의 전쟁에서 살아남은 인물일 뿐만 아니라 학창 시절 잠시 사회주의 공부를 하다 감옥에 간 이력이 있다. 그래서 한국 독자에게 이 작품은 식민지 말기 만주와 관동군, 회의주의적 엘리트 지식인, 소련과 일본의 전쟁, 소련 인식, 일본의 패전 이후 만주의 상황 등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이처럼 메일러와 고미카와 준페이의 소설은 각각 ‘미국-일본’, ‘소련-일본-중국’의 사람들을 다룬다. 그래서 1960년대 초반 한·미·일 동맹 강화를 앞둔 한국의 미·일 전쟁문학의 수용은 양국의 전쟁과 역사인식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전쟁 책임, 전후 책임의 역사적 청산 없이 진정한 안보 동맹과 문화 친선은 어렵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에서는 전쟁문학과 관련해 헤밍웨이(Ernest Hemingway)의 『무기여 잘 있거라』뿐만 아니라 미첼(Margaret Mitchell)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레마르크(Erich Maria Remarque)의 『서부전선 이상 없다』, 톨스토이(Reo Tolstoy)의 『전쟁과 평화』 등이 많이 읽히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메일러와 고미카와 준페이의 작품은 1960년대 초중반 한국에서 “미·일의 제2차 세계대전을 결산하는 대표 전쟁소

5) 기존 전쟁문학을 읽고 깊은 감명과 영감을 받는 것은 전쟁문학 작가지망생의 일반적 특성이다.

설”로 평가받았다는 점에서 전쟁 책임과 역사인식을 다룬 만한 가치를 확보하고 있다.⁶⁾ 이제 두 작품의 번역 수용의 맥락을 살펴보고, 작품의 전쟁 재현이 갖는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2. 전쟁의 상품화와 전쟁문학의 베스트셀러

1) 노먼 메일러 『나자와 사자』와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노먼 메일러의 소설은 한국에서 1962년에 번역되었지만 그 이전에 그 존재가 이미 알려져 있었다. 메일러의 소설은 1948년 미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고 1949년 일본에서 번역돼 1950년 베스트셀러가 되었으며 일본에서 1950년에 번역된 게오르규의 『25시』(1949) 등과 함께 큰 인기를 얻고 있었기 때문이다(신구문화사 편 1963, 384). 하지만 1952년 한국에 중역된 『25시』와 달리⁷⁾ 메일러의 작품은 분량이 지나치게 많은 탓인지 번역이 늦었다. 번역 출간 이전 이 작가에 대한 소개는 엘리트 지식인에 의해 이루어지다가 1960년 9월 『일본전후문

6) 소설과 달리 회고록 분야에서는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의 회고록이 1949년부터 일본에서 번역되었으며 한국에서도 처칠의 ‘제2차대전회고록’의 최종권이자 노벨문학상 수여 작품인 『승리와 비극』이 간행된 바 있다(윈스톤 S. 처어칠, 강봉식·조성식 공역, 1954; 『사상계』 1954/11, 106).

7) 게오르규에 대해서는 이형선(2016/5/30) 참조.

제작품집』에 약간 소개되고 동년 11월 『미국전후문제작품집』이 간행되면서 대중화되기 시작했다.⁸⁾

전쟁 비판적 종군 문학 중에서도 건전한 비판적 리얼리즘의 대표작으로⁹⁾ 소개된 『나자와 사자』의 메일러는 인류가 만든 기계문명의 메커니즘을 고발하고¹⁰⁾ 불합리한 현실에 대한 저항과 시대에 대한 책임의 소명을 다하고 있는 양심적이고 실천적인 작가로 인식됐다.¹¹⁾ 이와 함께 『나자와 사자』는 1949년 작품이기 때문에 1960년대 한국에서는 작가의 작품 경향이 10여 년 동안 변화해온 과정이 소개되기 시작했다. 『바바리 해안』과 같은 작품을 내놓은 1950년대 후반에는 초현실주의적 색조의 지성적 멜로드라마 작가로 알려졌고,¹²⁾ 1960년 11월 『미국전후문제작품집』에서는 『길 위에서(On the Road)』(1957)의 작가로서 미국 비트문학의 선구자인 잭 케루악(Jack Kerouac)과 함께 비트 제너레이션에 속하는 것으로 평가됐다.¹³⁾ 전쟁

8) 참고로 고은은 “신구문화사에서 나온 『전후세계문제작품집』의 소설들은 우리 소설의 단조로움, 예컨대 주인공이 집으로 퇴근할 때 그 퇴근길에 겨우 더해지는 것이 이발관에 들러 면도를 하고 돌아가는 장면으로 만족하는 그런 단조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신선한 구성과 대담한 묘사가 살아있으므로 그것들이 많은 독자를 확보한 것이”라고 했다(고은 1993, 302).

9) “世界文化의 動向(3) 美國의 文學(上)”(경향신문 1953/12/07, 2).

10) 박이문(1957/04/06, 4).

11) 양병식. “문학과 시대와 양심”(경향신문 1954/10/17, 4).

12) “미국문단의 신경향”(경향신문 1958/12/05, 4).

13) 신구문화사 편(1966/09/20, 392); “노란 메일러와 ‘裸者와 死者’”(경향신문 1964/02/08, 5).

소설의 대표 작가가 미국 사회의 속물근성과 기성 도덕을 공격하는 사회비판적 지식인으로 변모한 셈인데, 한국에서는 전쟁문학자의 위상만이 확보됐다.

미국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자국에서 나온 3대 전쟁문학 작품으로 어윈 쇼(Irwin Shaw)의 『젊은 사자들』(1948),¹⁴⁾ 제임스 존스(James Jones)의 『지상에서 영원으로』(1951), 노먼 메일러의 『나자와 사자』(1948)를 꼽는데, 그중에서도 『나자와 사자』가 최고였다. 이 소설은 1961년 5월 발표된 정음사의 『세계거작전집』 간행 계획에서 10번째에 위치했는데,¹⁵⁾ 1962년 안동립 번역에 의해 ‘문학사’에서 가장 먼저 출간되었고 베스트셀러에 올랐다. 『미국전후문제작품집』에서는 “10명의 주요 인물들의 미국생활을 선명하게 그려 내면서 그들의 실전의 모양과 더불어 군대생활의 우열(愚劣)한 메커니즘을 그렸다. 전쟁의 극한상황과 군대의 팃쇼적 기구에 의한 인간성의 압살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그 투철한 리얼리즘 때문에 이 소설은 금차 대전 중에 나온 가장 위대한 작품이라”고 평하고 있는데, 1962년 한국의 서적 광고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 처음 번역되는 제2차 대전의 결산적인 문학작품

14) 소설 『젊은 사자들』은 1959년 을유문화사 세계문학전집의 제1권으로 출간되었으며 영화로도 상영됐다.

15) “世界巨作全集 正音社서 刊行”(동아일보 1961/05/21, 4).

참혹한 전쟁의 도가니 속에서 인간이 인간이기를 소리높이 외치는 휴머니즘.

전쟁과 살육과 절망과, 그리고 여자와 향수...

극한상황에서 허덕이는 적나라한 인간의 모습을 그린 일대파노라마! 세계문학사상 이렇게 리얼하고 웅대하게 전쟁을 묘사하고 문제를 일으킨 작품은 일찍이 없었다. 6.25의 참변을 몸소 겪은 우리 민족의 모두가 한 번씩은 꼭 읽어야 할 명작¹⁶⁾

언뜻 보면 여느 전쟁문학에 붙여도 이상할 바 없는 홍보 문구인데 마지막 문장의 ‘6.25를 겪은 한국인이 읽어야 할 명작’이 눈길을 끈다. 왜냐하면 이는 한국 전쟁문학의 부족, 외국 전쟁문학이 다수 존재하는 상황에서 전쟁문학으로서 『나자와 사자』가 갖는 위상과 성격, 그리고 전쟁소설의 문예 영화로의 제작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먼저 미국에서 인기를 모은 메일러의 작품도 영화화가 추진되었다. 1949년 7월경 ‘워너’사에서 이 작품을 영화화하려는 작업을 시작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한국 전쟁이 발발하면서 반전 문학인 『나자와 사자』가 미국인에게 보기 불편한 작품이 되어 버린다. 이로 인해 반전소설의 영화화가 불가능하게 되면서 제작이 무산되었다. 그러다 1958년 RKO사에 의해 다시 만들어진 영화는 1964년 2월부터 11월까지 한국에서 상영되었다.

16) “미국서만도 2백여만부가 각진된 전쟁문학의 최고봉!”(동아일보 1962/03/21, 1).

그러나 이 문예 영화는 혹평을 받았다. 원작이 가지고 있는 전쟁 고발은 깊이 없는 수박 겉핥기에 그쳤고 대량 학살의 전쟁은 스포츠 놀이처럼 그저 재미 위주의 오락 전쟁 영화가 되고 말았다.¹⁷⁾ 게다가 라울 윌슈 감독은 원작의 내용과 정반대로 ‘전쟁광이자 명령체계를 중시하는 크로포트 상사’를 사망케 하고 부대 사령관 커민스 소장의 권위에 맞서는 하버드 출신의 소위를 살려 버린다.¹⁸⁾ 또한 영화는 국가의 목적에 대한 순응주의가 핵심을 차지했다. 이런 점으로 인해 작가가 지향했던 ‘군조직 메커니즘의 고발’의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 감독이나 출연자들이 3류 이하의 스태프였다는 점도 제작 실패의 한 요인으로 간주됐다.¹⁹⁾

그래서 『나자와 사자』는 영화보다는 소설이 더 인정받았다. 1962년에 이어 영화가 개봉되어 다시 독자의 관심을 끈 1964년 베스트셀러의 순위에 오른다. “6.25를 겪은 우리 민족 모두가 봐야할 명작”이라는 조언은 그와 같은 참혹한 전쟁이 재발되어서는 안 된다는 이유와 함께 상대적으로 한국 작가의 전쟁문학의 부족을 함의하는 것이기도 하다. 해방 이후 문인들은 히노 아시헤이(火野葦平)의 『보리와 병정』을 능가하는 전쟁문학이 나오지 않는 데 한탄했다. 그 원인으로 당시에는 전쟁 경험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혔지만 한국전

17) “영화평: ‘스포츠’조의 전쟁물 - 「裸者和 死者」”(조선일보 1964/02/23, 조간5).

18) “原作과 出發點 달라져 『裸者和 死者』”(동아일보 1964/02/24, 6).

19) “文學과 映畵와 政治”(경향신문 1964/03/02, 5).

쟁이 발발하자 그러한 이유도 궁색해졌다. 전쟁이 끝난 한참 뒤인 1958년에도 서구 전쟁문학의 걸작에 준하는 작품은 나오지 않아서 ‘한국 문학의 후진성, 작가 역량 문제, 발표 기관의 부재, 전쟁을 몸소 치른 작가가 한국에는 없다’는 진단이 나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소설의 변화와 발전에 관한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그동안 한국의 전쟁소설은 사건 중심이었는데 인물 중심으로 바뀌면서 전장의 전투만을 묘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단순히 전쟁 상황의 치열성을 알려주는 것은 뉴스나 전쟁 사건의 스케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인간성 추구하고 현실의 불만을 극복해 승화된 경지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곽종원·박영준 2005).

이러한 전쟁문학의 변화상에 대해서는, 여러 전쟁소설이 독자의 사랑을 받던 1964년 백철이 잘 정리한 바 있다. 그에 따르면 근대적 전쟁은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서 처음으로 소설화되는데 ‘영웅이나 상류 인간’이 주인공이다. 제1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서부 전선 이상 없다』의 레마르크, 『무기여 잘 있거라』의 헤밍웨이의 단계에 가면 주인공이 사병으로 바뀌고 전쟁 주동자를 비판하는 내용이 대두된다. 그리고 제2차 세계대전의 『나자와 사자』에 이르면 인간을 예측화시켜 노예화하는 기계문명의 반인간적 메커니즘을 다루게 된다(백철 1964/6, 252-259). 그래서 이 시점의 전쟁문학은 기계문명 비판에 더해 상부에 대한 반발, 인간성 옹호의 휴머니즘을 지향하게 된다. 실제로 『나자와 사자』는 사병들의 고통과 사회 현실에 대한 불만, 군 최고권력자에 대한 최하급 장교인 소위의 반발, 군조직의

명령 체계와 직급 비판, 죽음의 공포와 생존욕, 극한의 조건에서도 인간이고자 하는 인간성 옹호의 휴머니즘 등을 방대한 양으로 다루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가진 반전소설 『나자와 사자』는 제2차 세계대전의 기억, 당대 베트남전쟁과 전쟁열, 반전 분위기와 맞물려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 읽혀 1964년 이미 1,500만 부가 팔렸다. 한국에서도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1961년 11월 미국에 베트남 파병 의사를 밝힌 후 1964년 5월 존슨(Lyndon Johnson) 대통령이 지원을 요청하고 1964년 9월 1차 파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홍석률 2010, 44-51) 전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시기였다. 한국의 독자는 한국을 해방시켜준 제2차 세계대전의 승전국 미국의 전쟁소설에 전쟁 책임을 따질 이유가 없었다. 때문에 메일러의 작품은 기본적으로 반전 소설로서 수용될 수 있었다.

2) 고미카와 준페이 『인간의 조건』과 한일회담

고미카와 준페이(五味川純平)는 헤밍웨이, 게오르규의 『25시』, 노먼 메일러의 『나자와 사자』, 앙드레 말로의 『인간의 조건』 등의 문학적 영향 하에 『인간의 조건(人間の條件)』(1956)을 썼다. 이 무렵은 일본에서 영화 〈이등병 이야기(二等兵物語)〉의 성공과 함께 일었던 이등병 붐 등 전쟁 기억의 상품화가 진행된 시기였고 나카노 요시노부(中野好夫)는 ‘이미 전후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던 무렵이었다(박광현 2016/5, 248). 이 작품이 1958년 베스트셀러에 오르자(이한정 2016, 28) 영화감

독 고바야시 마사키(小林正樹)가 제작에 나서 1959년부터 1961년까지 총 3부작을 내놓았다. 이 영화는 1960년 8월 베니스영화제에 출품되었고²⁰⁾ 감독은 유명 반전 영화 제작자로 자리매김했으며 소설은 더욱 대중화됐다.²¹⁾ 1960년대 초반은 안보 투쟁으로 반전·전쟁 혐오 감정이 비등했던 시기이기도 하다(나카무라 2006, 78-83).

영문학자 이정윤 씨 번역으로 서울 정향사에서 발행한 이 소설은 출간되자 곧 독서계를 석권, 독자층의 화제 속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전 6부작으로 된 『인간의 조건』은 2부를 1권으로 하여 3권(각권 46판 350면 내외)으로 나왔는데 가장 잘 팔렸던 것은 처음 나온 1권(1~2부)으로 약 1년 사이에 5만부가 매진되는 놀라운 반응을 보였다. 2권은 60년 11월에, 3권은 60년 12월에 각각 출간(2권 약 3만 5천부, 3권 약 1만5천부 매진)되어 1권이 나온 60년 9월부터 62년 초까지 3권 합해

20) “베니스映畫祭出品 14個 選拔作品을 發表”(경향신문 1960/08/06, 4).

21) 고바야시 마사키(小林正樹) 감독의 〈인간의 조건(人間の條件)〉은 6부작이다. 2부작씩 묶어서 총 3회분으로 상영됐는데 1·2부 206분, 3·4부 177분, 5·6부 189분, 총 9시간 32분의 대작이다. 현재 시중에도 판매되고 있다. 고바야시 마사키(감독), 나카다이 타츠야, 아라타마 미치요(출연), 〈인간의 조건〉(4disc, 피디엔터테인먼트, 2011/04/01); 막스 테시에는 이 영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했다. “양식적 결합과 배우들의 조금 과장된 듯한 비장한 연기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조건』은 일본관 『전쟁과 평화』로서 일본 영화사의 기념비적 작품으로 남아있다. 영화는 일부 영화관에서는 상당기간 밤새 상영될 정도로 일본에서 대성공을 거두었지만 프랑스에는 한참 후에야 개봉된다”(테시에 2000, 76).

약 10만부가 나가 당시 출판계를 놀라게 했다.

당시 정향사(현재 휴업)대표였던 주채원 씨(현재 태극출판사 근무)는 초판 5천부(1권의 경우)를 찍고 중판부터 5천~1만부씩 찍어내 나중에는 지형이 험어 보수를 할 정도였다고 황금기를 되새기면서 공급치였던 한국서적주식회사의 60-61년 가을 총수금액의 6~7할이 『인간의 조건』 판매대금이었다고 전한다. 이 소설의 인기가 한창이었던 60년 가을에는 이대 입구의 이화서림에서는 하루 2백 권씩 팔려 하루에 몇 번씩 책을 공급할 정도였으며 모 대학에서는 이 책을 한 학급 학생들이 돌려가며 읽을 정도로 대학생들 간에 화제가 되었고 지방서점에서는 책 발송을 재촉하는 요망이 상당했다는 얘기가²²⁾(밑줄, 인용자)

이 작품을 1960년 9월 『인간의 조건(人間的 條件)』(상, 중, 하) 3권으로 한국에 소개한 이정윤도 동경에서 이 영화를 보고 번역을 결심했다. 1950년대 한국에서 일본 문학 번역은 6종에 불과했다. 하지만 4·19를 거치면서 일본 문학,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고(편집부 1960/11, 159-161), 1961년 7월 리영희의 조선일보 ‘유엔 동시가입’ 이야기가 반공법에 저촉이 되면서 학생들은 통일에 관해 논의하지 못하고 한일 문제에 매달렸다. 1960년 1년 동안만 40여 종 넘게 출판이 되기 시작했는데(이한정 2016, 16), 그중에서도 『인간의 조건』은

22) “홀려간 만인의 사조 베스트 셀러(6) 오미천순평 작 “인간의 조건”(경향신문 1973/03/17, 5).

일본 문학의 붐을 주도하는 작품이었다. 1962년에는 불법 표절 인쇄본이 시중에 돌아 저술업자 김태운이 저작권법 위반으로 구속되었고²³⁾ 한일협상이 진행되던 1963년 6월에는 9판을 찍는 인기를 누렸다. 1963년 오노 망언, 1964년 6·3항쟁, 1965년 6월 22일 한일국교협정 조인, 1965년 ‘제2의 구보다 망언’으로 간주된 ‘다카쓰기 발언’ (다카사키 2010/2, 228-244) 등이 이어지면서 한일회담이 시대적 화두가 된 상황에서 이 일본 소설은 1967년까지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의 지위에 있었다.

『인간의 조건』은 ‘일본 붐’, 소설,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미디어 문화산업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1962년 10월 개봉한 정창화 감독의 영화 <대지여 말해다오>는 고미카와 준페이 소설의 번안물이었다. 광고 선전에 원작자와 작품을 밝혔다가 문제가 발생하자, 당국은 원작자를 선전 간판에서 지우게 한 후 상영을 허가했다.²⁴⁾ 이 영화에는 소설에서 군국주의를 싫어하는 일본 주인공 대신 우리나라 학병을 내세웠다. 그래서 영화 광고에도 “일본군국주의에 양같이 끌려간 우리나라 학병의 생생한 무언의 저항!”이라는 문구가 쓰였다. 그러나 주인공이 “좀 더 한국인으로서의 처신이 있을 법한데 이 영화가 학대받는 식민지 인텔리의 사상성이나 휴머니즘보다도 줄거리만 좇은 통속취향의 오락물에 그쳤다”²⁵⁾ 비판을 받았다.

23) “잘팔리는 책 二百餘種적어팔아”(동아일보 1962/01/21, 3).

24) “日本色彩映畫말쟁”(동아일보 1962/10/18, 5).

더 주목을 요하는 문화 번역 현상은 극작가 한운사(韓雲史)에게서 발견된다. 일본어에 능숙한 한운사는 1950년대 고미카와 준페이(高見和)의 소설과 영화의 흥행을 이미 접했다.²⁶⁾ 이를 참조하고 자전적 경험을 살려 한운사는 1960년 8월부터 1961년 1월까지 방영된 일요연속극 〈현해탄은 알고 있다〉를 만들었다. 정창화 감독이 영화 주인공을 학병으로 바꿨듯이, 학병 출신인 한운사 역시 ‘아로운’이라는 학도병을 주인공으로 설정하여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군국주의를 비판하고 사랑과 굴하지 않는 휴머니즘을 표현했다. 제2편 “현해탄은 말이 없다”(『한국일보』 연재, 1961), 제3편 “승자와 패자”(『사상계』 연재, 1963; 방송명 〈현해탄아 잘 있거라〉)가 뒤이었고, 〈현해탄은 알고 있다〉는 김기영 감독에 의해 1961년 영화화되었다(윤석진 2007/12; 함충범 2014/4 참조). 한운사는 1967년 KBS TV에 〈아로운(阿魯雲)〉(현해탄은 알고 있다 시리즈 3부작)을 쓰고 있을 때 일본에서 고미카와 준페이를 만나게 되면서 감격했다. 당시 일본 아사히신문에서 한운사의 방송을 〈한국판 인간의 조건〉이라고 크게 다뤄주기도 했다.²⁷⁾

25) “아쉬운 抗拒精神 〈大地여 말해다오〉”(경향신문 1962/10/30, 8).

26) “나는 일본과의 ‘어제’를 청산하자고 나섰다. 그때 일본에서는 고미카와 준페이의 소설 『인간의 조건』이 큰 인기를 얻고 있었다. 만주에서 일본군으로 복역하며 작가가 겪었던 일을 토대로 군국주의를 반추한 내용이었다. 새로 들었던 장면 정부는 뭘 하고 있는가. 8월 들어 나는 앞으로 나섰다. ‘내가 소화해 주마! 저 악몽과 같은 일제 강점기를 청산해 주마!’ KBS에서 「현해탄은 알고 있다」를 쓰기 시작했다”(한운사 2006, 126).

하지만 일본문학 및 문화의 침투를 우려하던 사람들은 『인간의 조건』의 인기가 탐탁지 않았다. 일본에서는 “기껏 통속작가의 半熟작품”에 불과하다거나²⁸⁾ 일본인의 말을 빌려 “작가가 아니라 파격의 작문가”²⁹⁾ 수준이라는 폄하가 있었다. 그러나 이 작품이 선풍적인 인기를 끈 것은 본격적으로 일본 소설이 소개되던 시기에 호기심을 끌 수 있었고 작품의 내용이 전쟁, 폭력, 살인, 섹스, 휴머니즘, 공포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독자가 매혹될 만한 재미가 있었다. 무엇보다 식민지 말기 만주를 배경으로 군수회사와 탄광, 관동군, 소련과의 전쟁, 일본의 패전 등의 내용을 다루고 있어서 메일리의 『나자와 사자』보다 한국인에게 더 친숙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첫 번역자인 이정윤도 역자 서문에서 고미카와 준페이와 “저 전쟁 동안을 간접적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협력이라는 형태로 지나온 많은 사람들이 결국 오늘의 역사를 만든 것이니까 나는 나의 각도에서 한 번 더 그 속을 지나 보지 않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 같이 생각되었다”고 쓴 원저자 서문을 가져오면서 “원저자의 서문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우리도 한번은 정리해야 할 지난날의 사실이기에 번역할 생각이 들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일본 사람과 다시 만날 수 있고, 친교를 가질 수 있다고까지 느꼈다”(오미천순평 1960/9, 2)

27) “韓雲史 人生漫遊記(38)”(매일경제 1992/11/26, 24).

28) “日本은 들어오고 있다(完) 文化”(경향신문 1965/02/22, 5).

29) “나는 日本을 봤다 小田씨의 所論에 答하면서(上)”(경향신문 1963/11/19, 3).

고 밝히고 있다. 이 연장선상에서 고미카와 준페이³⁰가 쓴 개인적 패전기가 20년 만에 공개돼 1968년 잡지 『명랑』에 실리기도 했다(고미카와 1968/3, 176-179). 즉 한·일 문화교류와 회담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작자가 전쟁 반성을 내비친 이 소설 역시 역사 청산 문제와 관련해 당대에 소비되었던 것이다.

3. 재난으로서의 전쟁과 휴머니즘의 장막, 역사인식, 전쟁 책임

1960년대 초중반은 대미추종정책, 굴욕적 한일회담, 매관자본과 신식민지, 군부정권의 등장과 병영사회화,³⁰⁾ 베트남전쟁 등이 사회적 이슈였다. 4·19 직후 통일 논의가 대두되고 한미 원조협정 반대 및 행정협정 체결이 제기되었으며 1960년 8월에는 연세대학교가 설립자의 후손인 호레이스 G. 언더우드를 신임총장으로 임명하고 한국인 교수 2명을 해임하는 안건을 처리했다가 한 학기 내내 교수 파업과 학생 시위에 부딪쳤다. 1962년 파주에서 미군 병사들이 민간인을 공격하는 범죄가 발생하자, 주요 학생단체가 주한 미군 주둔에 관한

30) 1960년 5·16쿠데타로 군사정권이 들어선 후 병역회피자의 비율이 현격히 줄었다.

1962년에는 병역법이 개정되고 각 지방에 병무청이 신설되면서 징집 관련 문민통치가 군부통치로 바뀌었으며 1965년 징병제 보완 작업, 1968년 향토예비군이 설치되면서 군대 다녀와야 사람이 된다는 얘기가 일반화되어 갔다. 1969년에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 교련교육이 재계되었다(오제연 2016, 191-212).

협정(SOFA) 폐기를 주장하며 시위가 벌어졌다(브라진스키 2011, 320-342). 미군기지 인근 ‘양공주’ 피해범죄도 빈번했다. 1963년 일본 오노 망언과 한일협정 반대 ‘6·3시위’ 반민족 매관자본 논의도 제기됐다(홍석률 2004, 207). 특히 ‘제2의 이완용이 되더라도 한일회담을 성사시키겠다’는 정부 관료의 발언을 접한 임종국은 역사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친일문학론』(1966) 집필을 추진했다(정운현 2006, 235). 일본에서도 1960년대 미·일 안보조약 반대투쟁이 격렬했다. 이처럼 1960년대 초중반은 한국인의 민족주의와 반외세주의가 미국과 일본 양국 모두를 향하고 있었다. 비등해진 민족감정과 역사의식의 재정향이 중요해진 사회적 분위기였다.

이때 메일러와 고미카와 준페이의 소설은 당대인이 양국의 전쟁 인식을 알 수 있는 유용한 매개물이었다. 미국은 1950년대 초반 전후가 끝났고, 일본은 1956년 즈음부터 ‘전후’가 끝났다는 주장이 나왔으며, 한국은 식민지배 유산뿐만 아니라 한국전쟁까지 더해져 전후가 현재진행형이었다. 아픈 역사와 빈곤한 현실에 처한 1950년대 한국의 대학생들은 ‘우리는 왜 이렇게 존재할 수밖에 없으며 어떠한 역사적 경로를 거쳐 오늘에 이르게 됐는지 묻고 또 물었다. 또한 이승만 독재정권이 무너지면서 단순한 애국주의도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유근호 2011, 19, 73). 당대 현실의 조건인 식민지배와 한국전쟁은 대외 외교 문제가 부각될수록 여전히 중요한 화두일 수밖에 없다. 이때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한 전쟁문학이자 그 결산으로 인식된 작품들은 한국인에게 흥미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제 두 작품을 통

해 미·일 양국의 전쟁문학의 성격과 인식 차이, 그것이 전쟁의 기억 및 역사의식과 맺는 관계를 좀 더 살펴보자.

1) 권위주의적 군조직 메커니즘과 전쟁의 수난사

(역자해설) 등장하는 주요인물은 사단장인 장군과 냉혹한 척후소대 선임하사관, 그들에게 대립하는 하버드대학출신의 진보적인 인텔리소위, 그 외 척후소대 사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저자 자신을 모델로 했다고 생각되는 대학출신의 청년소위의 운명이 특히 우리의 주목을 끈다. 일선에서 이 청년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밀림이나, 폭풍우, 일본군뿐만이 아니라 아군의 팻쇼적인 군대기구이며 그러한 군대 기구를 대표하는 장군과 중사(척후소대 선임하사관)의 간계였다. 그는 장군에 의해 정찰대지휘관으로 척후로 나갔다가 중사의 허위정보 때문에 일본군 잠복병에게 사살되고 만다. 저자는 장군의 입을 통해 「본래의 유일한 도덕은 권력의 도덕이다」고 한다. 그리고 「인간성이라든가 영성 같은 것은 가장 경멸해야 하는 위안제에 불과하다」고 공언하고 있다. 또한 이 소설은 'Time machine'이라고 하는 플래시백의 수법으로 주요인물의 과거의 생활을 그려 보이고 있는데, 그것은 전전의 시민생활에 있어서 그들이 이미 인간의 존엄성이나 생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린 인물이었을 뿐이고 전장은 단지 그 사실을 재확인하는 장소에 불과하다. 이미 여기에는 승리자란 없고 나자와 사자만이, 전쟁이 이루어 놓은 절망적인 극한상황 속에 나뒹굴고 있을 뿐이다. 이 거대한

작품 속에서 작자가 날카롭게 들쭉신 신랄한 야유는 그저 야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의 잔인성, 인간성의 모독에 대한 항의와 절규가 배어 흐르고 있는 것이다(메일러 1964/2/12, 837-838; 밑줄은 인용자).

『나자와 사자』는 일본군이 사수하는 남태평양의 가공적인 섬 아노 포페이에 상륙한 미국 전위부대의 고투와 승리를 다룬 작품이다. 군수물자 지원이 원활한 미국이 섬에 철저히 고립된 일본군을 사실상 일방적으로 공격하고 승리하는 소설의 설정은 맥아더 장군이 필리핀 일대에서 몇 번 구사한 섬 고립전술을 연상케 한다. 소설의 내용은 ① 섬에 상륙작전 → 진지구축과 전진 → ② 후방작전 척후부대 침투(밀림, 일본감시병과 교전)와 작전 실패 → 후방작전과 별개로 미군의 전투 승리로 전개된다. 전쟁문학하면 계속된 전투와 죽음을 떠올리기 쉬운데 실상 이 작품은 전장(戰場)의 전투보다는 전투를 준비하면서 벌어지는 부대원의 내면과 갈등에 훨씬 많은 비중을 할애하고 있다. 미군과 일본군의 싸움은 섬에 상륙할 때와, 진지를 구축하고 전선을 조금씩 끌어올리는 과정에서 등장하는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들려오는 ‘포격소리’만이 전쟁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환기해 준다. 왜냐하면 소설의 주요 등장인물이 소속된 부대가 척후부대(정탐소대)이기 때문에 척후를 나가지 않을 때는 진지 구축 작업에 투입되기 때문이다.

소설 내용 ①에서는 예상보다 진격 준비가 늦어져 고민인 군사령관 커밍즈 장군과, 장교의 위선과 허위를 조롱하는 보좌관 허언 소위

(하버드 출신), 정탐소대를 이끄는 선임하사관이자 잔혹한 정복욕의 크로프트 중사, 그 외 14명 남짓의 정탐소대원이 벌이는 갈등이 핵심이다. 또한 소설 내용 ②에서는 커밍즈 장군에게 미움을 받아 정탐소대의 책임자가 된 허언 소위와 크로프트 중사의 알력, 소위의 전사(戰死) 그리고 섬 후방의 거대하고 웅장한 아나카산에 대한 크로프트 중사의 정복욕이 핵심이다.

이 소설은 각 등장인물의 소개를 바꿔가며 사건을 전개하는데, 각 인물이 군에 입대하기 전의 삶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그 연장선상에서 군생활의 고민(예: 본국에 홀로 남겨진 아내)을 드러내는 방식이다. 즉 등장인물의 인종, 출신지역, 재산, 학벌, 직업, 결혼 유무 등에 따라서 확연히 다른 내적 고민이 제시된다. 백인, 흑인, 유대인, 히스패닉, 아시아인 등 다양한 인종이 섞인 다민족국가인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인종갈등이 여전히 심한 나라였다. 그래서 백인 사병은 흑인을 멸시했고, 반유대주의자인 깰러거 사병은 유대계인 골드스타인이나 로드를 조롱했으며, 멕시코계인 마티네즈는 하사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등감에 시달린다.³¹⁾ 하버드 출신이자 부유한 사업가의 자제인 허언 소위가 유일하게 군사령관 커밍즈 장군의 총애를 받은

31) 미국은 1847년 멕시코를 침공하여 당시 멕시코의 55%의 땅을 차지한다. 현 미국 남부의 네바다, 유타, 애리조나, 콜로라도, 캘리포니아, 뉴멕시코, 텍사스가 그에 해당한다. 가령 2005년 한국에서 개봉한 영화 <레전드 오브 조로>(The Legend Of Zorro)에는 캘리포니아가 미연방의 31번째 주로 편입되는 것을 기뻐하는 장면이 등장한다.

것도 이러한 배경 때문이다. 가난한 남부 출신 역시 무시당한다. 소설에서 대학교육을 받을 만한 재산과 지적 능력이 없는 대다수 사병의 가정환경과 성장과정은 참혹했다. 이들은 제대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어린 나이에 노동현장에서 일하며 가정을 책임져야 했다. 마음의 유일한 안식처는 사랑하는 애인이었지만 결혼을 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했다. 이처럼 사회적 차별을 태생적으로 겪어온 장병들은 군을 통해 신분 상승과 '전쟁영웅'이라는 사회적 인정을 꿈꿨지만 군조직문화도 기성 사회와 별반 다르지 않으며 죽음의 공포만이 존재했다. 특히 하사관은 자신보다 군 경력이 짧으면서도 직급이 높은 허언 소위 류의 장교를 싫어했다. 그 결과 정탐소대의 지휘권을 장악하기 위해 크로프트 중사가 거짓 정보를 흘려 허언 소위가 일본군의 총격에 죽게 되는 일이 발생한다.

즉 군에는 권위주의적 조직문화, 사회적 차별, 명령-복종의 규칙과 승진을 둘러싼 계급 갈등이 존재했다. 이러한 군대문화를 싫어한 허언 소위가 고위 장교의 위선을 조롱하고 경멸하지만 커밍즈 장군에게 감상주의적 자유주의자이자 군기를 흐리는 자로 낙인 찍혀 정탐소대로 쫓겨났을 뿐이다. 세계 최고수준의 부대이자 자유의 나라인 미국의 군대가, 실상은 사회적 불공정과 권위주의적 기성질서의 축소판이었던 셈이다. 한국전쟁이 기존의 사회갈등과 모순을 드러내는 계기였다고 하듯, 미군 입대 전 사회적 소외의 경험과 차별의 구조가 입대 후에도 지속되고 있는 현실을 고발하는 것이 이 전쟁문학의 중요한 성격 중 하나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의 독자는 『나자와 사자』를 통해 미국의 군대 문화와 미국사회를 인식할 수 있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 작품은 전쟁문학으로서 그들에게 전쟁이 무엇이었는지도 보여준다. 이 서사의 전쟁은 전투와, 전투 준비로 나뉜다. 먼저 전자의 측면에서 보면, 앞서 말한 군대문화의 구성원들도 전투 상황에 직면했을 때는 오직 생존만이 목표가 된다. 누구든 생존하려면 살인을 해야 한다. 이 작품에서 미군이 일본군 살해를 자세하게 묘사한 것은 두 장면이다. 하나는 ①에서 레드와 크로프트가 쉬고 있던 2명의 일본군과 우연히 만난 것이고 두 번째는 ②에서 마티네즈 하사가 일본진지를 정탐하다가 일본군 보초병 한명을 칼로 죽인 대목이다. 여기서 일본군에게 살해될 뻔 했던 레드의 공포의 기억, 적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보초의 목을 베어버린 마티네즈의 살인기억이 매우 절절하게 다뤄진다. 이들은 그 기억 때문에 잠도 잘 자지 못하고 공포와 참회의 고통에 시달린다. 그 외 사병들도 작전 중 한 명 씩 전우가 죽어가는 걸 목도하면서 죽음의 공포에서 휩싸인다. 전쟁소설 『나자와 사자』가 살인을 부정하는 반전문학의 성격을 갖는 것은 이러한 대목이 잘 보여준다.

후자의 전투 준비는 전투를 위해 작전을 준비하는 대목과 관련된다. 이 섬은 대다수 밀림 산악지대이며 폭풍우가 계속되면서 땅이 진흙탕이다. 작전 소대가 적의 감시를 피해 밀림을 돌파하고 폭풍우에 시달리는 장면이 소설의 2/3을 차지하는 수준이다. 장병들은 전투하는 시간보다 밀림을 헤치는 극한의 시간이 훨씬 많다. 또한 ②

에서 크로프트 중사는 거대한 산을 등반하려는 맹목적 욕심에 부하들을 독려해 밀림과 일본진지, 산악지대를 돌파한다. 이들의 작전 수행과 상관없이 일본의 부대는 미군 일선부대의 포격으로 전멸했다. 정탐소대는 결국 산을 등반하지 못하고 지나왔던 밀림을 다시 돌파해 귀환하는 고생을 하면서 소설은 끝이 난다. 헛된 작전과 죽음은 전쟁의 허망함을 여실히 드러낸다. 맹목적으로 집착하고 강행하는 크로프트를 대하고 있는 독자라면 생텍쥐페리의 『야간비행』이나 앙드레 말로의 작품과 같은 행동주의문학의 색채를 손쉽게 느낄 수 있다. 이처럼 이 전쟁소설은 맹목적인 명령이 지배하는 전쟁과 장병의 죽음이 지닌 허무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반전을 환기했다.

요컨대 『나자와 사자』는 부조리한 사회적 차별 고발, 권위주의적 군조직(기계문명) 메커니즘 비판, 덧없는 살인과 죽음의 공포, 부상병 구출을 다룬 반전문학이자 휴머니즘문학, 맹목적 전쟁 의지와 산악정복을 다룬 행동주의적 문학을 포괄하는 전쟁문학이다. 미국에서는 1955년 ‘승차거부운동’ 등 흑인의 분노가 표출되면서 민권운동이 시작되었고 1963년 8월에는 마틴 루터 킹(Martin Luther King) 등 25만 명이 인종평등과 자유를 주장하며 워싱턴을 걸었으며 1964년 6월 ‘미시시피 자유여름운동’을 거쳐 겨우 민권법이 통과되었다(카슨 2000, 69-444). 이러한 맥락에서 이 작품의 인종차별과 교육 실패, 사회적 불공정 내용은 미국인이 충분히 공감하고 고평할 만했고, 한국 독자는 미국이 아직 진정한 ‘자유 국가’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문학적 가치가 높지만 이 작품은 승전국의 작품이기 때문에 전쟁 책임에 관한 자의식은 전혀 없다. 소설의 시간적 배경도 제2차 세계대전 말기이고 섬에서의 고생담만 부각되기 때문에 식민주의나 제국주의에 관한 자의식이 전혀 드러나지 않아서 가해자-피해자의 관계도 나타나지 않고 미·일 양국의 싸움은 맹목적이고 무의미한 전투와 전쟁으로 표상될 뿐이다. 그래서 일본군에 대해서도 언급이 거의 없는데 일본군이 “이동식 갈뭇집을 전선에까지 끌고 다니”(메일러 1964/2/12, 236)는 것을 미군 사병들이 부러워하는 대목이 나올 뿐이다. 토착민도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미군이 해방자의 모습도 띠지 않는다. 당시 미국은 조선을 식민지에서 벗어나게 해준 나라이자 원조 및 동맹국가였기 때문에 한국 독자는 이 소설을 읽고 미국을 비난하는 민족감정을 가질 이유가 없었고 미국에게 점령당하는 일본군의 처지에 희열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면서도 한국전쟁을 겪은 한국인은 전쟁을 비판하는 전쟁문학의 반전(反戰)에 공감할 수 있었다. 『나자와 사자』에는 사병들의 노동과 고생담이 소설의 분위기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휴머니즘의 성격만이 강하게 부각된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전쟁이 재난으로 표상되지 않았었는데, 전쟁이 끝난 이후에 나온 이 작품에는 밀립과 폭풍우 그리고 죽음에 직면한 인간을 다룰 때 “재난”이라는 언급이 계속되며 전장의 상황이 재난으로 인식된다. 이는 고미카와 준페이와 『인간의 조건』도 마찬가지이다. 두 작품에서 전쟁은 반전 문학의 함의 중 하나인 ‘재난으로서의 전쟁’이다. 다시 말해 재난

과 전쟁이 결부되어 반전의 의미가 부각되는 반전 문학이 되는 것이다. 이 점이 두 전쟁소설의 중요한 성격이다. 그렇다면 ‘재난으로서의 전쟁’, 반전, 휴머니즘 등이 부각될 때 전쟁문학이 갖는 성격을 고미카와 준페이와 『인간의 조건』을 통해 살펴봐야 하겠다.

2) 휴머니즘, 전쟁 피해자, 전쟁 책임의 면죄부: 자유, 사랑, 생활의 욕망

전쟁을 재난으로 강조하고 그 피해를 일반화하는 것은 반전 문학의 맥락에서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전쟁 책임 문제를 논외로 하는 승전국의 전쟁소설이 ‘재난 문학’을 표방했을 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문제는 논해지지 않거나 왜곡되고 만다. 재난 문학은 모두를 전쟁 피해자로 만든다. 모두가 전쟁 피해자인 것처럼 간주될 때 전쟁의 참혹성이 한층 강화되면서 전쟁문학은 반전 문학이자 휴머니즘의 가치를 드높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순간 전쟁 발발의 원인과 책임 소재는 불분명해지고 만다. 결국 전쟁문학이 전장의 처참한 전투를 실감나게 재현하고 전쟁의 고통을 일반화하며 ‘전쟁 피해자’론을 양산하는 데 그치는 경우 관련 국가의 독자에게는 전쟁 오락물로 전락되기 쉽다. 등장인물이 전쟁이라는 죽음의 조건 하에서 성욕, 식욕, 폭력, 생존욕, 인정욕망, 속물 등의 적나라한 본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전쟁물의 오락적 성격만이 더욱 두드러지는 것이다. 그러나 성욕, 폭력이 인간의 당연한 ‘본성’인 것처럼 간주되는 것은 전쟁범죄의 책임과 인간성 논의를 무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휴머니즘, 전쟁 피해자의 전쟁문학을 살펴보자.

고미카와 준페이(高見和義)의 『인간의 조건』의 소설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이들 전쟁문학은 절망적인 상황에 놓인 인간이 생존하기 위해 얼마나 인간이기를 포기해야 하는지 그리고 인간이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한다. 1963년 대규모 전장(戰場) 신을 선보이며 한국전쟁을 본격적으로 묘사한 영화 <돌아오지 않는 해병>의 주제도 이와 같았다. 전쟁문학이 기본적으로 인간성 옹호의 휴머니즘 문학의 가치를 확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메일러와 고미카와 준페이의 두 작품도 모두 휴머니즘 문학의 결정판으로 평가되었다. ‘휴머니즘’이 전쟁문학의 성격을 결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인 것이다.

이러한 ‘휴머니즘 전쟁문학’이 전쟁 책임과 역사의식 문제와 결부될 때 내셔널리즘의 장애를 넘고 관련국의 사죄 및 위로로 기능할 수 있어야만 막연한 ‘휴머니즘’의 보편화가 가져오는 ‘우리 모두 전쟁 피해자’론의 구축과 확산 그리고 민족 간 갈등의 은폐를 극복할 수 있다. 앞서 살펴봤듯이 전승국의 『나자와 사자』는 전쟁의 참상과 미국의 사회적 차별, 군조직의 메커니즘을 고발하는 데 충분히 효과적이지만 전쟁 책임의 문제는 간과되었다. 미국 작가가 미국인을 위해 쓴 미국의 전쟁문학인 셈이다. 그렇다면 패전국의 소설인 『인간의 조건』은 휴머니즘의 한계를 넘어서 민족 문제와 책임의 소재 등으로 문제의식을 확장하고 있는가.

『나자와 사자』의 감상주의적 자유주의자 허언 소위처럼, 휴머니즘적 전쟁문학에서 자유를 옹호하는 주인공 설정은 전형적이다. 고미

카와 준페이『인간의 조건』의 주인공인 ‘가지’는 자유주의자 및 휴머니스트로 등장한다. 더 명확히 하면 그는 대학시절 사회주의에 공명해 감옥에도 다녀온 엘리트 지식인인데 의사 전향 사회주의자는 아니고 사회주의에 일정한 거리를 둔 ‘자유 및 인간성’ 옹호주의자이자 평범한 소시민이다. 따라서 이 소설은 고발과 저항의 주체인 가지의 수난사이기도 하다. 가지가 저항을 하면 탄압을 받고 쫓겨나며 박해가 반복된다. 불합리한 ‘인간의 조건’과 그 수난이 격할수록 휴머니즘의 강도도 강해지는 효과가 있다.

작품은 가지의 공간 이동에 따라 내용이 바뀌는 구조이다. 그 시간적 배경은 1943년~1945년 12월이며, 공간적 배경은 만주다. 만주는 전쟁을 준비하는 ‘준전장’에서 1945년 8월 소련이 침공하면서 전장으로 바뀐다. 구체적으로 이 소설은 ① 군수 제철회사 조사부 직원 → ② 군 소집면제를 조건으로 라오후링 광업소의 노무관리자 부임 → ③ 소집면제 박탈과 군 입대 → ④ 소만국경지대 소련의 침공과 일본의 패전, 패잔병 가지의 귀환 투쟁으로 내용이 전개된다. 크게는 라오후링 광업소에서 중국인 노동자 및 포로들의 노무관리를 하면서 기존 관리자와 충돌하는 전반부와, 군에 징집되어 부당한 선임의 행태와 군대문화에 저항하다가 소련과의 전투에서 겨우 생존해 아내에게 돌아가기 위해 분투하는 후반부로 대별된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패전 이전 광업소와 군에서의 갈등, 패전 이후에는 패잔병으로서 아내에게 귀환하려는 과정에서 가지가 겪는 수난사가 소설의 구도다. 이 과정에서 비판자이자 자유 옹호자인 ‘가지’의 투쟁이 불

합리한 ‘인간의 조건’을 극복하려는 ‘양심적 일본인’으로 표상되면서 『인간의 조건』은 휴머니즘문학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양심적 일본인’을 주인공으로 내세운 전쟁문학과, 일본의 전쟁 책임, 이 일본의 전쟁소설을 읽는 한국 독자의 상관관계가 형성된다. 이제 가해국의 국민이면서 ‘양심적’ 일본인 가치를 살펴보자. 『나자와 사자』가 허언 소위뿐만 아니라 여러 인물을 내세워 군과 사회적 차별을 비판했다면, 『인간의 조건』은 조력자가 있기는 하지만 가지 혼자 그 일을 감당한다. 전쟁 말기 중요 전쟁 물자를 공급해야 하는 광업소(탄광)의 유일한 목표는 생산 확충이다. 일본인 현장관리자 오까자끼는 폭력을 통해 중국인 노동자와 포로를 뒤통한다. 이와 달리 대학출신이자 조사부 직원이었던 가지는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해” 주면 생산량은 자연스럽게 증가될 거라고 믿는다. 노동자의 인격을 존중하여 월급 증가, 폭력 금지 등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게 그의 노무관리법이었다. 이러한 입장 차이로 인해 가지와 오까자끼는 매번 충돌한다. 특히 가지는 관동군이 데려온 중국인 포로 노동자들에게도 인도주의적 방식으로 대하고 포로수용소를 탈출하려는 중국인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해가려는 모습을 보여 이 소설에서 독보적으로 인간적이고 양심적인 일본인의 위상을 갖는다.

이는 관동군 장교가 중국인 포로를 처형하는 것을 막는 가지의 행동을 통해 더욱 극대화된다. 이 일로 가지는 군 소집면제 특혜를 박탈당하고 징집돼 입대하게 되는데, 군대에서도 내무반의 부조리한 ‘선임-후임’ 관계를 바꾸기 위해서 투쟁을 멈추지 않는다. 이 작품도

전쟁은 후반부에야 등장하고 부조리한 사회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고발과 투쟁이 다수를 점하고 있는 것이다. 행동하지 않는 양심은 진정한 양심이 아니라고 생각한 가지는 행동적 지성으로서 매번 결단과 실천을 감행한다. 이 과정에서 그는 “양심적 일본인”, “센티멘탈 휴머니스트”, “전향 사회주의자로 낙인찍힌 엘리트지식인” 등으로 호명되며 “인간다움” 옹호의 화신이 된다. 이 점에서 고미카와 준페이와 전쟁소설도 메일러의 『나자와 사자』와 그 성격이 흡사하다. 여기까지의 가지의 행동과 사고는 인류 평화와 보편적 인권과 결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인간의 조건』은 의미 있는 반전 문학이 된다.

그런데 두 작품이 차이가 있다면 고미카와 준페이의 것은 패전국가의 소설이기 때문에 소련과의 전쟁에서 가지가 속한 부대가 전멸하고 가지와 몇 생존자만이 도망가는 내용이 추가되어 있다. 패전국 일본국민의 입장이 소설에 반영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일본인에게 『인간의 조건』은 패잔병이 만주의 현지 중국인과 소련군을 피해 계속해서 남하하며 전투를 벌이고 배고픔을 겪으며 산속을 헤매다가 결국 소련군의 포로가 되고 탈출하는 등의 고생담이다. 동시에 가지가 사랑하는 아내가 있는 집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후반부에서 전투 이후 부분부터 결말까지는 일종의 귀환 서사이다.³²⁾ 결말은 포

32) 패전 직후 일본 최초의 귀환 서사인 후지와라 데이의 『내가 넘은 삼팔선』(1949.11)이 민간인 여성의 귀환을 다룬 것이라면, 고미카와 준페이의 『인간의 조건』은 만주를 배경으로 남성 관동군의 귀환 서사이다. 여기서 두 작품의 인기 요

로수용소에서 탈출한 가지가 남하하다가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쓰러지는 장면으로 끝나기 때문에³³⁾ 일본인뿐만 아니라 한국전쟁을 겪은 한국 독자의 심금을 울리기에 충분하다. 가지처럼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군에 징집되고 부조리에 저항하는 양심적 일본인’이 사랑하는 아내와의 행복한 생활을 꿈꾸지만 좌절되는 서사는, 전쟁 비판의 정당성을 절실히 확보하고 있다. 귀환하는 가지는 총을 든 관동군이면 서도 소설에서 평범한 일본의 소시민으로 표상된다. 따라서 이 소설 역시 일본의 민간인은 전쟁 책임이 없고 전쟁 피해자로 설정된다. 『나자와 사자』와 마찬가지로 ‘전쟁 피해자’론의 전쟁 인식을 보편화하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이 소설의 자국민인 일본인은 『인간의 조건』을 읽고 위로와 합리화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식민지배를 겪은 한국인은 이 소설에 완전히 공감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 무엇보다 이 소설에는 소련군과 만주의 중국인, ‘위안부’, 일부의 조선인이 등장하기 때문에 식민지민이었던 한국 독자의 입장에서 소설 내 주요 사건들을 다층적으로 재해석하여 ‘재난으로서의 휴머니즘 전쟁문학’의 프레임에 은폐된 가지의 ‘모순’과 역사적 사실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중국인과 전쟁을 고려하면 소설 전반부는 중국인 포로와 위안부, 사기꾼 조선인이 논의될 수 있

인의 차이를 가늠할 수도 있겠다.

33) 소설의 작가가 살아서 귀국한 이력을 독자가 안다면 이 대목은 열린 결말로 해석된다.

으며 후반부인 패잔병의 후퇴에서는 중국인 현지 주민과 소련군에 대한 가지의 인식이 쟁점이 될 수 있겠다. 먼저 전반부를 살펴보면, 만주 배경인 이 소설에서 라오후링 채광소의 핵심 관리자는 모두 일본인이며 노동자는 모두 중국인이고 관동군에 의해 끌려온 포로도 중국인이다. 이곳의 노동자는 기업에 직접 고용되지 않고 파두제(把头制)에 의한 간접고용이었다. ‘파두’는 노동자의 모집, 수송, 작업, 관리 등의 일체를 기업으로부터 청부받은 일종의 간사다. 이들은 주로 지연, 혈연을 통해 모든 노동자를 지휘 감독하고 기업과 계약해 일을 하며 노동자의 임금을 공제한다(오카베 2009, 172). 이런 채용 관행 때문에 ‘일본인 기술자 - 중국인 비숙련공’의 취업구조 하에서 중국인은 이중의 임금착취와 가혹한 노동 및 폭력에 시달렸다. 이 때문에 가지는 월급을 올려주고 식사의 질을 높이며 학대를 줄여 노동자의 마음을 달래고 포로의 탈출을 막는 방식으로 당국이 정한 생산량을 달성하고자 했다. 중국인을 인간으로 대우하는 가지의 말과 투쟁은 그를 인간성 회복과 양심적 인간의 전형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식민지 말기에 이미 노동자의 인격을 존중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노무관리기법이 도입되었다는 사실이³⁴⁾ 이 소설에는 전혀 배

34) 1955년에 설립된 일본생산성본부는 합리화를 촉진하는 고급 경영기술을 보급시켰으며, ‘협조적인 노사관계, 유순한 노동계급, 경영상의 테크노크라시적인 질서를 정당화하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생산성 이데올로기’를 추진하였다. 일본생산성본부가 추진한 경영법 중에서, 인간관계관리와 품질관리의 기원 및 선구는 전시기에 있었다. 인간관계관리의 경우, 비물질적인 노동 인센티브에 대한 증대된 의존을

제되어 있다. 폭력과 정신주의만 강조한 현장관리자 오카자끼가 생산주의적 노무관리라면,³⁵⁾ 노무반장인 가지는 노동자 인격 존중과 근로 여건의 합리화를 통한 생산력주의적 노무관리자에 해당했다. 가지도 결국은 전쟁수행을 위한 협력자의 한 유형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가지는 양심적 인물로만 표상되어 있다. 이렇게 격상된 가지의 존재는 전쟁문학의 휴머니즘을 확증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더

통해 전시기에 이미 준비되고 있었다. 사구치 가즈로는 1940년의 「근로신체제확립 요강」에서 대일본산업보국회의 이데올로기적 기반으로서 〈근로〉의 개념이 강조되었음을 지적한다. 사구치에 따르면, “근로 이데올로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것이 노동자의 능동적인 행위를 전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노동자의 ‘인격’은 승인되어야 했으며 근로는 그 전 인격의 발로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창의적’이고 ‘자발적인’ 노동을 행하는 인간으로 이해되었다. 그리하여 노동자들은 임금을 주된 동기로서 삼아서는 안 되며, 국민으로서 국가에 봉사해야 하는 자로 간주되었다. 전쟁 말 무렵까지 고용자 측은 확실히 비물질적인 인센티브에 대한 의존을 점차 더 강화시켜 갔다. 쓰쓰이에 따르면, “숙련노동자에 대한 높은 수요, 공장규율의 완화, 경영자에 의한 ‘노동착취’에 대한 반대를 고려하여, 노동자를 몰아붙이는 고압적인 테크닉은 엄격하게 제한되었다.” 얼마 남지 않은 대안들 가운데 하나가 ‘정신지도’였다. “직장을 인간화한다는 지속적인 신념과 심리학적 인식을 결합시킨 이러한 접근에는 전제가 있었다. 그것은 경영자는 종업원들을 일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의 삼촌과 같은 교감 속에서 그들이 일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관념이다.” 그리하여 “경영에 대한 동기부여와 심리가 경영에 대하여 가지는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며, 고용자는 독재자라기보다 오히려 지도자라고 인지하기 시작함으로써 전쟁 중에 경영자들은, 미국의 인간관계론을 패전 후 일본으로 도입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던 것이다”(사카이 외 2014, 192-194).

35) 식민지 말기 조선의 소설은 대다수가 생산주의를 반영하는 작품이었다.

나은 일본인'상을 구축하는 데 기여한다. 평범하고 착한 일본의 시민이 겪는 수난사 역시 '우리 모두가 전쟁 피해자'라는 전쟁인식을 창출한다.

이러한 전쟁 피해자적 입장은 가해자의 행동과 인식을 합리화하거나 은폐하는 작업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이 소설에는 탄광에 노동자로 투입된 중국인 포로의 사기와 근로의욕 진작을 위해 회사에서 여성을 동원하는 데 모두 인근 "위안소"의 중국 여성이다. 문제는 이 위안소가 민간 영업으로 그려지고 심지어 중국인 포로에게 성접대를 한 '위안부' 중 한 명은 포로와 사랑에 빠진다. 이와 같은 설정은 위안소 여성을 성노예가 아닌 '창녀·창부'화하고, 일본의 국가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효과를 낳는다.

또한 탄광의 포로, 노동자, 위안부가 모두 중국인인 것에서 알 수 있듯 조선인이 배제되어 있다. 이 소설에서 조선인은 딱 2번 언급되는데, 첫 번째가 이 탄광의 중국인 노동자를 빼돌리려는 사기꾼 조선인과, 작품 후반부에서 만주에 거주하는 조선인인데 후자는 의미 없는 존재고 첫 번째 조선인은 불량배로 그려진다. 조선인이 배제되면서 만주 사회 내에 존재하는 다층적인 민족 차별의 문제가 완전히 소거되어버리고 조선 밖으로 가장 많이 끌려간 조선 여성에 대한 논의도 불가능했다. 만주는 오직 일본인과 중국인 간의 공간으로 설정되어 패전 이후에도 조선인에 대한 일본의 책임은 논의 자체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1960년대 초중반 이 소설을 접한 한국 독자는 작가가 의도적으로 일본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배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는 사실을 쉽게 깨달았을 것이다.

게다가 만주를 일본인과 중국인 간의 공간으로 설정한 것도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 작품에는 전쟁은 미국과 소련에게 진 것이지 중국에게 진 것이 아니라는 언급이 나온다. 이는 당대 일본의 인식이기도 했다. 때문에 소설에서도 중국인에게 진정으로 사죄하는 인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히려 패잔병에 의해 현지 중국인은 재산을 약탈당하고 살해당한다. 가지도 그중 한 명이다. 즉 『인간의 조건』은 일본의 역사인식을 상당 부분 반영한 작품인데, 주인공 ‘가지’를 전쟁피해자의 상징으로 만들기 위해 패잔병의 귀환과정의 지난한 서사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자유와 인간성 옹호의 가지’가 살인자가 되어버린다. 작가는 가지를 합리화하는 논리가 또 필요하게 된다. 이것은 일본 전쟁문학의 휴머니즘과 전쟁 피해자론의 결합이 가진 모순을 아주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 독자는 이 모순을 파악하며 『인간의 조건』의 한계를 인식할 수 있다.

그렇다면 패잔병 가지의 모습을 더 살펴보자. 노동현장의 휴머니스트였던 가지는 군에 입대하면서 갑자기 부대 최고의 명사수가 되는데, 그는 패잔병이 되어서도 일행을 이끄는 리더가 된다.³⁶⁾ 가지

36) 가지는 갑자기 전투의 달인이 되어 패잔병을 이끌어간다. 이 때문에 독자들은 “주인공 가지가 지나치게 초인간적”이라는 비판을 했다(오미천순평b 1975/6/15, 482). 가지가 패잔병의 리더가 될 때, 문제는 그 그룹 안에 하사관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지휘체계가 무시되고 사병인 가지가 리더를 맡았다. 후퇴 중이더라도 이는 계급체계가 분명한 군조직의 지휘체계를 무시한 것이다. 여기서 군대는

가 스스로 자신도 전쟁 협력자였다는 것을 반성한다면 소련군에 항복을 하거나 후퇴 도중에 곳곳에 있는 마을의 중국인에게 도움을 청할 때 용서를 구해야 했다. 신변이 불안해서 그렇게 못한다면, 가지는 총을 버리고 민간인으로 위장해 남하했어야 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총을 놓지 않는다. 가지는 공산주의 이념의 군대인 소련군과 만주 현지 마을의 중국인을 믿지 않았다. 그가 다른 일본군과 차이가 있다면 성폭행을 하지 않은 것뿐, 많은 사람을 살해했다. 이 모든 것은 사랑하는 아내에게 돌아가겠다는 일념 하나에 의해 정당화된다. 소설에서는 “생활” 복귀라는 말이 반복해서 언급된다. 인간성 옹호자가 ‘인간불신’의 확산 속에서 자신의 안전과 행복만을 위해 오히려 살인을 자행하는 전쟁기계로 돌변한다. 가지는 자신의 자유와 사랑, 생명을 위해 타인을 살해하는 ‘휴머니스트’다. 그래서 이 소설에서 ‘자유와 사랑, 생활’은 주인공 가지의 살인을 비롯해 기타 일본 시민의 전쟁 책임에 면죄부를 주는 소설적 장치 및 가치가 된다.

그리고 오히려 초기 점령군인 소련군은 약탈과 성폭행을 일삼는

계급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군에서 계급은 긴급사태의 혼란을 피하고 지휘체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필요하며 직무에 맞는 경험과 기능을 숙련시켜 인사상의 혼란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鍛冶俊樹 2005, 84-85).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군에서 다양한 직무에 맞는 훈련과 직급을 경험하지 못하고 일부 전투 훈련만을 받은 가지가 ‘만능 군인’처럼 묘사되고 있는 것이, 독자에게는 지나치게 초인적이라는 인식을 준 것이다.

것으로 그려진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부정할 필요는 없다. “승리자도 전쟁범죄가 있다”는(오미천순평b 1975/6/15, 451) 지적은 이 소설의 미덕이다. 이것은 메일러의 작품에서는 부족한 점이다. 그러나 일본이 자국의 전쟁 책임을 외면하고 비난의 화살을 소련으로만 돌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학창시절 사회주의에 잠시 빠졌던 가지가 공산주의 이상국가와 현실 사회주의의 괴리를 지적하며 소련을 비판한다. 이로 인해 갑자기 제2차 세계대전은 이념 전쟁이 되고, 소련군의 과실이 반소, 반공 프레임에 의해 수렴되면서 이 소설은 반공 문학이 되고 만다. 일본의 군국주의 이데올로기나 천황제 이데올로기에 대한 자의식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일본인은 전쟁의 피해자이자 소련군에 의한 피해자가 된다. 더욱이 가지는 참전 군인이었으면서도 그 범주 안에 포함되고 만다. ‘군부 지도자만이 전쟁의 책임자이고 사병 및 민간인은 죄가 없다’는 인식은 패전 후 일본의 역사학 교육과 별반 다르지 않다(코모리 2005, 34-37). 휴머니티와 평화 이데올로기는 전쟁문학뿐만 아니라 전후 일본의 전형적 내러티브이기도 했다. 일본이 지금까지도 견지하고 있는 ‘국민 총피해자’ 및 국민수인론의³⁷⁾ 사유가 이미 이 작품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37) ‘국민 총피해자’ 관점에서 나온 ‘국민수인론’이란, 국민 모두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피해나 손해를 참고 감수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다. 전쟁피해 재판에서 ‘국민수인론’이 전개된 것은 1968년 11월 재외재산 보상에 관한 최고재판소의 판결이 처음이다. 최고재판소는 국가의 존망에 관련된 비상사태 시 국민 모두가 크든 작든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당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희생에 대해 헌법은 전혀 예상

일본의 만주 진출과, 전쟁 책임에 관한 언급은 한 번씩 나온다. 전자는 일본 만주 진출의 여부가 자국의 부족한 식량을 해결해 8,000만의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한 문제였다는 것인데 이는 침략의 역사를 선택지처럼 기술하는 태도이며 만주국이나 남경학살 등에 관한 얘기는 전혀 없다. 그나마 잠시 지나치듯 한 번의 언급에 그쳐 가해에 대한 깊은 성찰이 없다. 그보다는 후자인 전쟁 책임과 관련해 패전 후 소련군이 중국인 노동자를 학대한 오키자끼의 죄를 조사하기 위해 같은 곳 노무관리자였던 오키지마를 참고인 조사하는 대목이 흥미롭다. 오키지마는 과거 오키자끼와 적대시 하는 사이였지만 소련군에게 “거물급 전쟁범죄가 아니면 일본인 스스로 시비를 가릴 수 있도록 해”(오미천순평a 1975/6/15, 416)달라고 말한다. 이는 해방 후 한국에서 친일파처단의 장면 그리고 패전 후 일본이 ‘자주재판(自主裁判)’을 주장하지만 연합국이 수용하지 않았던 역사를 떠오르게 한다. 만일 이 소설에서 소련군의 처벌이 없었다면 오키자끼는 자신이 학대한 중국 노동자와 같은 거리를 이용하며 새로 시작한 장사를 아무렇지 않게 계속했을 것이다. 다양한 수준의 협력과 범죄를 세분화하고 책임을 묻는 작업의 곤란함만큼이나 그 필요성이 요구되는 장면이다.³⁸⁾ 요컨대 지금까지의 논의를 통해 재난과 휴머니즘, 전쟁피해자

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하타노 2016, 151).

38) 일본과 일본인의 전쟁 책임의 다양한 층위를 지적한 연구로 이에나가 사부로(2005)가 있다.

론 등으로 포장된 전쟁문학의 논리를 내파하고 국경이라는 경계를 넘어서 전쟁의 기억을 재구성할 수 있는 문학적 '소비'와 독법의 필요성이 요청된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4. 나가며

미국은 전혀 등장하지 않고³⁹⁾ 조선인은 사기꾼 불량배 한 명이 등장할 뿐이며⁴⁰⁾ 중국인과 일본인의 관계만 설정되어 있는 소설 『인간의 조건』은 결국 당대 일본 작가가 일본인과 국가를 위해 쓴 전쟁문학이다. 그것도 전쟁으로 희생당한 일본인에게는 진정한 위로나 사죄의 의미가 담기지 않았다.⁴¹⁾ 1967년 한운사가 고미카와 준페이를

39) 소련 외 또 다른 전쟁 당사자이자 전쟁 책임을 묻는 미국은 등장하지 않는다. 제철 원료탄으로 쓰이는 석탄 증산에 매진한 주인공 가지와 군수 제철회사가 등장하지만 1944년 7-9월의 미군의 안산 폭격은 얘기조차 되지 않는다. 이는 의도적으로 미군을 소거하는 당대 소설 문법과 상통하다.

40) 한국영화에서 만주의 경우, 1961년 제작된 〈지평선〉(정창화 감독), 〈먼동이 틀 때〉(김복 감독)에서부터 독립운동의 근거지이자 치안 부재의 활극(活劇) 공간으로 재탄생했다.

41) 일본에서 전장 체험에 대한 재일조선인의 문학적 재현은 1970년대 초반부터 시작된다. 정승박의 『별거벗은 포로』(『農民文學』, 1971/11)와 그 연작 소설 『지점』, 『전 등불이 켜 있다』이 대표적이다. 이 작품에는 일본의 본토 결전과 조선인의 도망, 탈출, 피신 등이 다뤄진다(정승박 1994/5).

만났을 때, 고미카와 준페이⁴²⁾가 자신은 “조선사람들한테 배상할 짓을 하지 않았어요”라고⁴³⁾ 말한 수준의 역사인식이 이 소설에 투사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현재 일본 젊은 세대가 식민지배와 전쟁은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항변하는 역사인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강제 동원된 ‘위안부’ 피해자가 가시화되지 않은 것도 마찬가지이다.⁴³⁾ 이러한 인식은 승전국 메일러 소설의 일본 수용에 변형되어 나타난다. 『나자와 사자』의 일본인 역지는 소설 속 미군이 당대 미국의 권력욕과 위선을 드러내며 미군은 인간성이 말살되고 권력에 맹종하는 말기적 증상을 격하게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했다(노먼·메일러 1961/5/5, 458-459) 이는 패전국의 번역가가 무/의식적으로 적국이자 승전국에 갖는 민족감정이 확인되는 비판적 시선이다.

결국 전쟁문학의 재현은 역사해석 및 설명이다. 전쟁문학의 교훈은 자국의 공식 기억 및 집단기억과, 문학의 역사적 재현의 상대화에서 도출될 수 있다. 전쟁 원인의 설명 없는 올바른 증언과 반전(反戰)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전쟁 체험의 일반화와 전쟁 기억의 고착화 및 전승은 역사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와 관련 피해국 국민의 전쟁인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죽음과 수난의 이야기를 다룬 전쟁문학이 ‘재난으로서의 휴머니즘 전쟁문학’은 될 수 있지

42) “韓雲史 人生漫遊記(38)”(매일경제 1992/11/26, 24).

43) 1965년 한일협정의 (재산) 보상에서 ‘위안부’는 포함되지 않았고 한국에는 1980년대 후반에야 그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했다.

만 국가와 민족의 경계를 넘어서는 문화교류와 민간 수준의 연대를 위한 디딤돌이 되기에는 그 효과가 너무 미미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품이 일본의 자국 비판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비록 불만족스럽지만 감격적이라는 당대 일부 한국인의 반응은 슬픈 역사의 초상이다.⁴⁴⁾ ~~소설~~

44) 두 소설이 역사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일본인에 대한 한국인의 민족감정을 수그러뜨리는 효과는 일부 있었다. 또한 『인간의 조건』의 제목처럼 인간다움을 지키려는 소설 속 인물들의 태도가 독자에게 더 큰 감명을 주었다. 당시 “1950-60년대 한국 사람들의 일상적 생활의식은 전란의 와중에서 어떻게 죽지 않고 살아남는가, 빈곤과 가난에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가정을 유지할 것인가, 독재와 부정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 어떻게 최소의 자존심을 유지하면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유근호 2011, 80). 또한 두 작품은 한국에서 전쟁의 상품화를 선도하여 정창화 감독의 영화 〈대지여 말해다오〉, 한운사의 작품, 『전쟁문학집』(1962.4), 1963년 영화〈돌아오지 않는 해병〉, 1964년 동아일보 50만 원 고료 당선작 홍성원의 전쟁소설 「디데이의 병촌」(홍성원 작)을 낳는 데도 영향을 미쳤다. 1964년에는 당시까지 창작된 국내 전쟁문학의 최고작인 박경리의 전작 장편 『시장과 전장』이 나오기도 했다. 상업 문사로 인식되기도 했던 이 어령은 이러한 분위기를 포착하고 『週刊한국』에 「戰爭테카메론」을 발 빠르게 연재했으나 최악의 졸작으로 평가받았다(편집부 1966/10, 150-151). 참고로 이 무렵 외국에서는 반전 소설의 고전으로 평가받는 커트 보니컷(Kurt Vonnegut Jr.)의 『제5도살장(Slaughterhouse-five)』(1966)이 출간되었다.

〈참고문헌〉

원전

- 오미천순평(五味川純平 고미카와 준페이). 1960/9. 『인간의 조건』(상, 중, 하). 이 정운 역. 서울: 정향사.
- _____. 1968/3. “이것이 관동군의 말로다.” 『명랑』. 176-179.
- 오미천순평a. 강민 옮김. 1975/6/15. 『일본문학전집8, 인간의 조건(상)』. 동서문화원.
- 오미천순평b. 강민 옮김. 1975/6/15. 『일본문학전집9, 인간의 조건(하)』. 동서문화원. 481-482.
- 고바야시 마사키(감독). 나카다이 타츠야, 아라타마 미치요(출연). 2011/04/01. 〈인간의 조건 (4disc)〉. 피디엔터테인먼트.
- 곽종원·박영준. 2005. 「전쟁문학을 말한다」(『서울신문』, 1958/6/25). 최예열 엮음. 『1950년대 전후문학비평자료 2』. 월인. 576-578.
- 메일러, 노먼(Mailer Norman). 1962. 『나자와 사자』. 안동립 옮김. 서울: 문학사.
- _____. 1964/2/12. 『나자와 사자』. 안동립 옮김. 문학사. 838-840.
- _____. 2016. 『벌거벗은 자와 죽은 자』 1,2. 이운경 옮김. 민음사.
- 백철. 1964/6. “전쟁문학의 개념과 그 양상.” 『세대』 73집. 252-259면.
- 신구문화사 편. 1963. 『일본전후문제작품집』(1960.9). 신구문화사.
- _____. 1966/9/20. 『미국전후문제작품집』(1960.11). 신구문화사.
- 정승박. 1994/5. 『벌거벗은 포로』. 우석출판사.

저서

- 고은. 1993. 『나, 고은』 3권. 민음사. 302면.
- 브라진스키, 그렉. 2011. 『대한민국 만들기, 1945-1987』. 나중삼 옮김. 책과함께.

320면.

- 나카무라 마사노리. 2006. 『일본 전후사』. 유재연·이종욱 옮김. 논형. 78-83면.
- 다카사키 소지. 2010/2. 『일본 망언의 계보』. 최혜주 옮김. 한울. 228-244.
- 테시에, 막스. 2000. 『일본 영화사』. 최은미 옮김. 동문선. 76.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엮음. 2008/12. 『한국민주화운동사1 - 제1공화국부터 제3공화국까지』. 돌베개. 473-474면.
- 사카이 나오키 외. 2014. 『총력전 하의 압과 제도』. 이종호 외 옮김. 소명출판. 192-194.
- 오제연. 2016. “병영사회와 군사주의 문화.” 오제연 외. 『한국현대 생활문화사 1960년대』. 창비. 191-212.
- 오카베 마키오. 2009. 『만주국의 탄생과 유산』. 최혜주 옮김. 어문학사. 172.
- 유근호. 2011. 『60년대 학사주점 이야기』. 나남. 19, 73.
- 이에나가 사부로(家永三郎). 2005. 『전쟁책임』(1985). 현명철 옮김. 논형.
- 이한정. 2016/5. 『일본문학의 수용과 번역』. 소명출판.
- 정영권. 2015. 『적대와 동원의 문화정치』. 소명출판. 6, 27, 139.
- 정운현. 2006. 『임종국 평전』. 시대의 창. 235.
- 코모리 요우이치. 2005. “문학으로서의 역사, 역사로서의 문학.” 코모리 요우이치·타카하시 테츠야 엮음. 『내셔널 히스토리를 넘어서』. 이규수 옮김. 삼인. 34-37.
- 카슨, 클레이본 엮음. 2000.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순희 옮김. 바다출판사. 69-444.
- 편집부. 1960/11. “奎國에 몰아치는 日本風.” 『사상계』. 159-161.
- 편집부. 1966/10. “이어령 作 戰爭데카메론.” 『靑脈』. 150-151.
- 하타노 스미오. 2016. 『전후일본의 역사문제』. 오일환 옮김. 논형. 151.
- 한운사. 2006. 『구름의 역사』. 민음사. 126.

홍석률. 2004. “1960년대 한국 민족주의의 분화.”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와 지식인』. 선인. 207.

홍석률. 2010. “위험한 밀월: 박정희-존슨 정부 시기.” 역사비평 편집위원회 엮음. 『갈등하는 동맹』. 역사비평사. 44-51.

논문

강우원용. 2012/11. “1960년대 일본문학 번역물과 한국 ‘호기심’과 ‘향수’를 둘러싼 독자의 풍속.” 『일본학보』 제93집. 한국일본학회. 79-93.

박광현. 2016/5. “재일조선인의 ‘전장(戰場)’과 ‘전후(戰後).’” 『한국학연구』 41집. 인하대 한국학연구소. 248면.

박이문. 1957/04/06. “自由의 確保 (上).” 『경향신문』.

윤석진. 2007/12. “한운사의 방송극 〈현해탄은 알고 있다〉 고찰.” 『비평문학』 27집. 한국비평문학회.

이행선. 2014/8. “해방기 식민기억과 청춘론-설정식의 ‘청춘’을 중심으로.” 『한국어문학연구』 63집. 한국어문학연구학회. 349-377.

_____. 2016/5/30. “게오르규의 수용과 한국 지성사의 ‘25시’ - 전후문학, 휴머니즘, 실존주의, 문명비판, 반공주의, 어용작가.” 『한국학연구』 41집.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함충범. 2014/4. “1960년대 한국영화 속 일본 재현의 시대적 배경 및 문화적 지형 연구.” 『한일관계사연구』 47. 한일관계사학회.

황병주. 2016. “냉전체제하 휴머니즘의 유입과 확산.” 『동북아역사논총』 52호. 동북아역사재단. 1~57면.

외국문헌

五味川純平. 1956. 『人間の條件』. 京都: 三一書房.

ノーマン・メイラー, 1949. 『裸者と死者』. 山西英一 譯. 東京: 改造社.
ノーマン・メイラー, 1961/5/5. 『裸者と死者』I. 山西英一 譯. 東京: 新潮社. 458-459.
鍛冶俊樹(카지 토시키), 2005. 『戦争の常識』. 文藝春秋. 84-85.

기타

『경향신문』, 『동아일보』, 『매일경제』, 『명랑』, 『사상계』, 『세대』, 『조선일보』,
『靑脈』

Abstract

1960s Early and Middle-age US and Japan Bestseller
War Literature and Crossing the Border War
Memories, Disaster · Humanism and War
Responsibility

Norman Mailer's *The Naked and The Dead* and
Junpei Gomikawa's *condition of humanity*

Lee, Haengseon _Korea University

Yang, Ahlam _Korea University

This article will review adoption history about Norman Mailer's *The Naked and The Dead*(1948) and Junpei Gomikawa's *Condition of Humanity*(1956) translated in Korea and which became the best seller in the early and mid 1960s. Both of these works were considered to be the best war literature ranging over on the battlefield of World War II. The order of the introduction of these two works was changed in Korea. *Condition of Humanity* In 1960 and *The Naked and The Dead* in 1962 were translated and introduced. Both were produced into films and screened. They became popular as a representative war literature in Korea in the early and mid 1960s and became a bestseller. But War fiction belongs to the literature of its own country, War is the recreation and memory of a war that can not be a national affair because it is accompanied by the assailants and the victims. The fictional return of a forgotten memory is a "violence of memory" and It stimulates ethnic feelings. On the other hand, the perception of war in novels is also a place

where we can discover the possibility of cultural exchange to improve relations with related countries. The war memories and experiences of the war literature that crossed the border in the situation of negotiations between the nations were the points to confirm and to influence the national consciousness and national feelings. Therefore, it is required to work on the recognition of the war implied by the two novels, the reality of war responsibility and historical awareness, and the impact on the Korean people.

■ **Keyword:** Translation Literature, Bestseller, Comfort Women, Korea-Japan Treaty, Han Woon-sa.

투고: 2017/2/24 심사: 2017/4/18 확정: 2017/5/19